

한중일 3국간 관광교류와 협력 강화에 관한 훗카이도 선언

1. 2006년 7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의 관광장관은 제 1회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을 계기로 각 국가의 민관 관광 대표와 함께 일본 훗카이도를 방문하여 아칸, 시레토코, 아사히카와, 소운쿄, 후라노, 삿포로 등의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시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2. 우리는 이 지역이 보유한 관광자원의 매력과 지역민의 따뜻한 환영을 통하여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환대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3. 우리는 한중일 3국간의 관광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3국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2일 훗카이도 쿠시로시 아칸정에서 제 1회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회담에서는 관광의 발전을 위한 3국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4. 우리는 우호와 협의의 원칙 하에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3국간 협력강화 및 우호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하여 지역 및 세계의 관광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5. 우리는 21세기 동북아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광범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향후 3국간의 관광교류와 협력의 기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다.
6. 우리는 관광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뿐 아니라 평화의 사자, 우호의 가교로서 국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관광객을 맞아들이는 국가와 지역에는 경제적 이익 창출, 국민간의 교류 강화, 인류 문화유산의 보전·활용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 요소가 되는 등의 다면적인 의의를 갖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7. 우리는 3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문화에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에 있어서의 연계성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3국간의 관계를 모든 면에서 강화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8. 따라서, 우리는 한중일 국민간 이해증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관광분야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3국 국민간의 상호이해 및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간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각국의 관광행정 책임자인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9. 우리는 문화, 교육·인재육성과 연구협력, 스포츠 교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간 교류를 관광분야 교류와 연계하는 것이 3국간의 인적교류 증대와 3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10. 우리는 업계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상대국이 자국을 방문하여 행하는 시장개척, 판매촉진 등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11. 우리는 각 국가의 정부가 외래관광객의 출입국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12. 우리는 관광정보, 관광교육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 한다.

13. 우리는 3국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관광교류 확대가 예견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지역이며, 한중일 관광 협력강화를 통해 3국간 그리고 3국 역외지역에서 3국으로의 인적교류를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14. 우리는 3국 국민의 3국 역외지역으로의 관광을 장려하고, 또한 3국 역외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을 환영한다.

15. 우리는 3국 역외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에게 우수하고 정성어린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16. 우리는 각국의 관광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국이 안고 있는 제약요인과 교류 확대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교환을 통해 검토·개선해 나가는 것이 3국 관광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이라 확신한다.

17. 이상을 기반으로 우리는 『한중일관광빅뱅(한중일 역내외 관광교류 확대 계획)』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의 당면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한중일관광빅뱅』의 당면과제는 별지와 같다.

(1) 3국간 또는 역내외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제약요인의 개선과 교류확대방안 검토를 위한 상호 협력

(2) 3국 연계협력방안 촉진 및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국간 협력과 지역 협력 체제 활용
(3) 교육여행을 비롯한 청소년교류, 문화·스포츠교류, 관광연구협력,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관광자원개발 관련 협력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3국간의 관광교류 확대

(4) 공동의 역외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의 공동사업 추진

18. 우리는 3 국간의 『한중일 관광빅뱅』을 통해 국제관광교류의 규모를 2005 년의 약 1,200 만명에서 2010 년까지 약 1,700 만명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는 교류 상황에 따라 재 검토될 수 있다.

19. 우리는 3 국의 연계사업의 일환으로서 한중일관광장관회담을 매년 여름에 교대로 개최한다. 3 국의 관광당국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ASEAN+3 관광장관 회담에서 한중일관광장관회담의 준비를 위한 협의를 실시한다.

2006년 7월 2일,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시 아칸정에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조인된 문서 각 1부에 서명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여유국장 샤오 치웨이
일본국 국토교통대신·관광입국담당대신 기타가와 가즈오